

광주서 기도원 폭발 화재 4명 사망

소규모 시설 소화기만 비치... 소방대상서 제외 화 키워



14일 오전 광주시 북구 오치동의 한 기도원에서 누전으로 추정되는 화재가 발생해 목사 등 4명이 사망한 가운데 경찰 관계자들이 수습한 시체를 엠블런스로 옮기고 있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14일 오전 광주시 북구 오치동의 한 기도원 3층 건물 지하에서 누전으로 추정되는 불이 나 기도원 안에 있던 목사 나모(여·53)씨 등 여성 3명과 남성 1명 등 4명이 숨졌다.

불은 이날 오전 9시45분께 시작, 출동한 119소방대에 의해 20여분만에 진화됐으나 내부 132㎡와 사무실 집기류 등이 불에 타는 등 소방서 추산 600만원 상당의 재산피해를 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이 기도원이 상가 건물 지하에 입주해 있었던 데다 소규모 시설로 소방안전 시설이 미비해 인명 피해가 컸던 것으로 보고 있다.

◇강한 폭발음, 화재원인? =순식간에 4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이번 사고의 원인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강한 폭발음은 들렸으나 폭발할 만한 물질이 발견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사망자들의 시신에 폭발로 생긴 외상도 없었다고 경찰은 전했다. 사망자들은 건물 내 방음재 등이 타면서 발생한 일산화탄소에 질식사한 것으로 보고 있다. 출입구 부분이 가장 많이 탄 점으로 미뤄 입구에서 예배당 방향으로 불이 번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경찰은 현장 정밀감식 결과 "1차적으로 누전으로 인한 불씨가 기도원 내 부엌과 벽면에 있는 인화성 물질에 옮겨 붙었고, 이후 가득 찬 가스로 인해 폭발이 일어났을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사망자 모두 봉사활동=이번 기도원 화재로 희생된 이들은 모두 같은 교회에 다녔으며, 척추장애 등 아픈 몸에도 불구하고 적극적인 봉사활동을 오래 동안 펼쳐 온 것으로 알려져 주위를 안타깝게 하고 있다.

화순에 살았던 장모(여·57)씨는 척추장애(장애 5급)를 앓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평소 봉사활동을 적극적으로

로 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장씨의 남편 구모(65)씨는 화원을 운영하며 딸을 도와 차량을 운행하며 틈틈이 아내와 함께 봉사활동 등을 해왔다.

이모(여·64)씨 역시 장씨 부부와 같은 교회에 다녔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씨는 해당 기도원이 5년 전 보상에 있을 때부터 기도하러 다녔으며, 지난해 3월 식도암 판정을 받은 남편의 쾌유와 시어머니(94)의 장수를 빌며 기도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소규모 종교시설, 예방대상서 제외돼 화 키워=불이 난 기도원은 대규모 종교시설이라기 보다는 근린생활시설에 해당, 별다른 설비를 갖추지 않았고 건물 내에 소화기만 비치해놓은 것으로 확인됐다. 또 지하에 입주해 있기 때문에 불이 나자 제대로 대피할 곳을 찾지 못해 화를 당한 것으로 분석됐다.

이 기도원은 숨진 나 목사 부부가 4~5년 전부터 운영해왔으며 이날 오후 4시, 7시를 시작으로 17일까지 진행할 신년 부흥회를 준비 중이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지하에 132㎡의 기도원이 자리한 이 건물은 일반 주택과 소규모 건물처럼 특정 소방대상물로 분류돼 소방안전점검 의무대상에서도 제외된 상태였다. 소방법상 주택을 제외한 면적이 400㎡가 넘으면 비상벨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고 600㎡ 이상은 자동화재탐지설비 등을 갖추도록 돼있다.

이번 사고를 계기로 소규모 기도원이나 종교시설들도 소화기나 안전설비 비치 여부 등 화재 예방 점검을 정기화하는 규정이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광주 구청 공무원 아파트서 목매 숨져
경찰, 경위 조사

14일 새벽 4시경 광주시 광산구 장덕동 한 아파트에서 광주 구청 공무원 유모(46·7급)씨가 목을 매 숨져 있는 것을 가족이 발견,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유서 등이 발견되지 않은 데다, 가정불화나 업무 스트레스 등을 토로하지 않았다는 가족들의 진술을 토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

/양세열기자 hot@kwangju.co.kr

'친동생 성폭행 의혹' 진실 드러나

전남경찰, 목포 현지 의사 영장 신청... 檢, 검토 후 청구 결정

목포경찰 소극 수사 도마

의사인 친오빠로부터 20년 넘게 성폭행을 당했다는 글을 올려 인터넷을 뜨겁게 달궜던 '친동생 성폭행 의혹' 사건과 관련, 경찰이 친오빠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검찰은 경찰의 수사 기록을 검토한 뒤 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전남지방경찰청은 14일 목포 모 병원의 의사인 A(47)씨에 대해 성폭행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06년부터 3차례에 걸쳐 피해자인 여동생 집 등에서 여동생을 성폭행하거나 강

제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피해자의 일관되고 구체적인 진술 뿐 아니라 피해자 동료 등의 참고인 진술, 피의자와의 통화 녹취록, 사건 당시 정황 등을 종합한 결과, 혐의 사실이 입증된다는 판단에 따라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덧붙였다.

A씨가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등 증거 인멸 우려가 높고 성폭행 혐의로 고소하는 등 피해자 부부를 압박한 점도 구속영장을 신청한 사유에 포함됐다.

경찰은 또 A씨 남매의 조사결과 검토를 거쳐 지난 1984~1993년에도 성폭행이 있었던 것으로 판단했지만 공소시효가 지나 처벌이 어렵다는 입

장을 내놓았다. 직접적인 물적 증거가 없는 상황에서, 피해자·참고인 진술, 사건 당시 정황 등을 근거로 구속영장을 신청한 것은 이례적이라는 경찰 안팎의 분석이다.

앞서 해당 사건을 수사하다가 불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처리하려했던 목포경찰의 경우 소극적으로 수리한 것 아니냐는 비난을 받을 수밖에 없게 됐다.

한편, A씨의 동생은 지난해 12월 '친오빠로부터 어렸을 때부터 수십년간 성폭행당했다'며 목포경찰에 고소했다. 이후 경찰이 불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넘기려하자 인터넷 포털에 관련 내용을 올렸고 조화가 수습민간을 넘어서며 공론화되자 전남경찰청이 보강수사에 나섰다. /김지용기자 dok2000@

또 '선의' 배운 목포해경

가거도 해상서 침수 中 선원 14명 전원 구조

신안군 가거도 해상에서 침수돼 구조를 요청한 중국어선이 해경경찰에 의해 무사히 구조됐다.

14일 목포해양경찰에 따르면 이날 새벽 2시경 신안군 흑산면 가거도 서방 22km 해상에서 항해 중이던 150t급 상타원 중국어선 노영여 57099호에 바닷물이 유입돼 침수 중이라는 구조 요청이 들어왔다.

중국 어선 선장 관모(45·산둥성)씨의 구조요청을 받은 목포해경은 대형 경비함정 2척을 급파해 선장 등 14명을 구조하고 영포 등을 이용해 배수 작업 등을 벌여 사고발생 3시간 만에 새벽 5시경 가거도 안전지대로 배를 옮겼다.

한편, 주(駐) 광주 중국총영사관은 이날 침수 중인 중국어선과 선원 14명 전원을 구조한 목포해양경찰에 감사 서한을 보냈다. 총영사관은 서한에서 "기상악화 속에 선박과 선원을 구조한 것은 국경과 국익을 넘어선 인도주의적 자세였다"며 고마움을 표시했다.

앞서 목포해경은 지난해 9월 17일 제16호 태풍 '산바'의 북상으로 기상이 악화하자 위험에 처한 340t급 중국 어획물 운반선 절영호호를 호송해 안전한 곳으로 피항시켜 선원 19명을 구한 바 있다. /목포=김병관기자 dss6116@

공천헌금 수수 양경숙씨 사기 혐의 추가 기소

서울중앙지검 조사부(이현상 부장검사)는 지난해 총선에서 민주당당 비례대표 후보 공천을 받게 도와주겠다고 돈을 받아 행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로 '라디오 21' 편집본부장 양경숙(여·52)씨를 추가 기소했다고 14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양씨는 지난해 초 부산지역 시행업체인 F사 대표 정영수(54)씨에게 '민주당 총선 관련 사업을 하고 있는데 돈을 투자하면 당선권 안의 비례대표 후보 순번을 공천받아 해주겠다'고 속여 12억원을 가짜로 함의를 받고 있다.

당시 경숙씨는 양씨에게 돈을 건넨 정씨 등 3명도 같은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양씨에게 사기를 당했다고 생각한 정씨는 지난해 11월 검찰에 고소장을 냈다. /연철뉴스

쉽게 치료되지 않는 알레르기 비염, 축농증 고질적인 콧병 수술없이 다스린다

원인적인 치료를 필요로 한다.

인체면역력 강화로 알레르기성 고질병을 치료한다.

일반적으로 알레르기성 비염에 걸리면 연속적인 재채기와 맑은 콧물, 코막힘 등을 동반하게 되는 데 이러한 알레르기성 비염은 조기 치료 가 매우 중요하다. 제때 치료하지 않고 방치해 만성화될 경우 축농증, 비염종(물혹), 중이염, 인두염, 기관지 천식 등 합병증을 불러올 수도 있기 때문이다.

알레르기성 비염 등 각종 코 관련 질환들은 학습에 치명적인 지장을 주고, 성장기 아동의 경우 성장에 있어 큰 걸림돌로 작용하기도 한다. 따라서 성적향상이나 성격형성에 악영향을 줄뿐만 아니라 성장발육에도 장애를 가져오기 때문에 효과적인 조기 치료 가 매우 중요하다. 원인적인 치료가 어렵기 때문에 대개 만성화되거나 축농증으로 진전되어 평생 호흡곤란과 두통, 집중력 저하 등으로 고생하게 되는데, 특히 어린이나 수험생의 경우 기억력이나 집중력 저하로 인해 학습 장애가 발생하기 때문에 보다

원인적인 치료를 필요로 한다.

중세가 심해지면 스트레스가 쌓이게 되고 신경질적인 반응이 나타나며 집중력이나 기억력이 감소되어 정서적으로 불안한 상태에 놓이기도 한다. 또 위장병이나 만성성 동으로 발전하면서 일상생활에 많은 지장을 초래하기도 한다. 따라서 이러한 알레르기성 비염은 조기에 치료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유근피동 20여 가지로 만든 한약 고질적인 알레르기 비염, 축농증에 좋은 효과 콧병치료의 시작은 먼저 환자의 몸을 건강하게 회복시키고 체질을 개선시켜 막힌 기운을 풀는 데 중점을 두는데, 이환용 원장도 이런 과정을 통해 10여 년간 비염을 중증적으로 치료해온 경험을 바탕으로 한약을 만

들어 효과적으로 비염환자들을 치료해주고 있다.

축농증, 알레르기성 비염, 비후성 비염 등 고질적인 코질환에 좋은 효과를 보이는 것은 유근피이다. 이 유근피에 삼귀재, 신이화, 수세미 등 면역력 증강과 호흡기가 튼튼해지는 20여 가지의 약재가 가미된 평강한의원원의 한약은 작은 한약으로 만들어져 어린이가 복용하기에 수월하며, 고질적인 비염이나 축농증에 좋은 효과를 나타낸다.

평강한의원에서 치료하는 알약은 주재료인 참느릅나무 껍질인 유근피는 예로부터 민간요법에서 콧병에 잘 듣는다고 하여 일명 '코나무'로 불리던 것으로, 콧병뿐 아니라 기침을 멈추게 하고 호흡기를 깨끗이 정화시켜주는 작용을 하며 염증이나 위장병 등에도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서울 평강한의원에서 참느릅나무 뿌리 껍질인 유근피로 만든 한약을 환자들에게 처방한 결과 알레르기성 비염과 축농증을 비롯한 각종 코질환에 좋은 치료성과를 거두고 있다. 평강한의원의 이환용 박사는 자연을 이용하면 어떤 병이든지 효과적으로 치료할 수 있다는 신념을 가지고 있다.

평강한의원의 이환용 박사 (한의학 박사, 경희대 한의과대학 외래교수)
02-3481-1656
www.dr-lee.co.kr
대한한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회 제090204-중-473호

KTCF (사) 한국맛음식연구원

Sthe1 요리학원

푸드코디네이터 자격증반&김치 대회반 · 자격증반&아동요리 자격증반&페덱자격증반 모집

푸드코디네이터 자격증반
교육일정 | 매주 토요일 PM2:00~PM4:00(12주)
교육과목 | 식재료지식, 푸드컬러, 꽃꽂이, 와인, 테이블매너, 푸드스타일링, 테이블 세팅

푸드코디네이터의 활동범위
푸드스타일링, 파티플래너, 테이블장식, 레스토랑컨설팅, TV쿠궁호스트, 푸드라이터 등
2013년 1월 19일 개강!

김치 대회반 · 자격증반
교육일정 | 매주 화요일 PM1:00~PM3:00(12주)
교육과목 | 김치 이론, 당근기 실습, 김치 퓨전 요리, 김치 스타일링

아동요리지도사의 활동범위
김치 전문가, 문화센터 · 평생교육원 강사, 부업, 창업
2013년 1월 19일 개강!

아동요리지도사 자격증반
교육일정 | 매주 토요일 AM10:00~PM12:00(12주)
교육과목 | 아동요리론, 아동요리지도서론, 아동요리와 유아아동요리의 예제와 실제, 아동요리 시연

아동요리지도사의 활동범위
평생아동요리지도사, 유치원 · 문화센터 · 평생교육원 아동요리지도사 등
2013년 1월 19일 개강!

페덱 · 이바지사 자격증반
교육일정 | 매주 화, 목요일 AM10:00~PM12:00(12주)
교육내용 | 오징어오일류, 꽃김오일류, 향미료, 정미료, 쌀장조림, 생선, 대추탕, 육포, 구절판, 찜닭부꾸미

페덱 · 이바지사의 활동범위
푸드스타일링, 파티플래너, 테이블장식, 레스토랑컨설팅, TV쿠궁호스트, 푸드라이터 등
2013년 1월 22일 개강!

푸드코디네이터 명인1호 · 김치소믈리에 명인2호
2012 대한민국 신지식인 교육부 장관 수상 "이성의 원장"

조리사자격증반 한식 · 양식 · 일식 · 중식 · 북어 수시개강 (주간 · 야간)
생활요리반 & 특수아동요리반 수시개강 (주간 · 야간)
Sthe1 요리학원 문의 전화 062-385-0723
금호파울스 건너편

2013학년도 전남대학교 행정대학원 신입생 모집

1. 석사과정(야간)

- 모집전공: 공공행정전공, 자치행정전공
- 수강지역: 광주반, 여수반, 남양반
- 원서 접수 기한
 - 특별전형(면접): 2013. 1. 31(목) 18:00 까지
 - 일반전형(면접 및 필답고사): 2013. 2. 14(목) 18:00 까지
 - 전형별 지원자격은 홈페이지 참조바람

2. 최고정책과정

- 모집대상: 정치인, 법조인, 고위공연, 경영인 등
- 원서접수 기한: 2013년 2월 까지 수시 접수
- 수업방법: 2013년 3월부터 2014년 2월까지 1년 과정 (매주 월요일 야간강의)

3. 관리사과정

- 모집대상: 공무원, 기업체 경영인 및 임직원, 각종 사회단체인
- 원서접수 기한: 2013년 2월 까지 수시 접수
- 수업방법: 2013년 3월부터 2014년 2월까지 1년 과정 (매주 목요일 야간강의)

4. 문의사항

- 전남대학교 행정대학원 행정실
 - 전 화: (062)530-5196, FAX: (062)530-2266
 - 홈페이지: http://cnugpa.kr